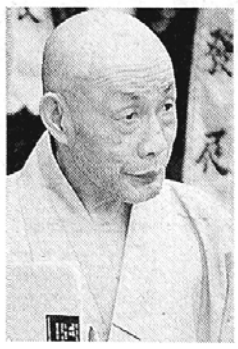
운제스님 불교학 연구 50년 결산

불교선집 '기원의 꽃' 완간



조선대·건국대 교수(사학)를 역임한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74)이 50여년간의 학문성과를 결산한 불교선집 〈기원(祇園)의 꽃〉(전 3권, 불교영상회보사 刊)을 완간했다. 운제스님은 이와함께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원효연구원(가칭)을 오는 9일 발족시킬 예정이다.

고승편, 교리·사상편, 잡문편으로 구성된 〈기원의 꽃〉은 〈한국의 불교사상〉 〈유마경〉 등 10여권의 저서와 〈사기〉 등 30여권의 역서, 40여편의 논문 발표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정리하고 원효연구원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됐다.

원효연구원 11월 9일 개원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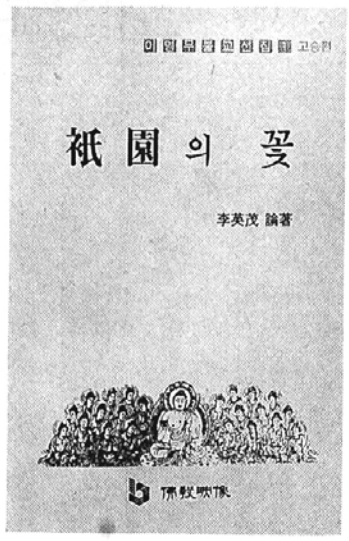
고승·사상·잡문편등 3권 펴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번역등 '눈길'

〈기원의 꽃〉 제1권 '고승편'은 중국 한국의 고승 37인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한 불교인물사이다. 중국편에서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황벽희운까지 11인의 중국고승을 조명했으며 한국편에서는 신라 원광법사로부터 근세의 한용운스님까지 26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했다. 이중 원효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 태고보우국사 한용운스님은 각각 논문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제2권 '교리·사상편'은 불교경전과 불교사상을 개관하면서 '대승불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제스님이 이번에 처음 번역한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번역문과 논문 '천태종의 수행과 지관법(止觀法)'이 눈길을 끈다. 또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공존공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사상과 생활속의 자비행·신행을 통한 청정한 세계의 구현을 제안한 재가불교운동의 강조는 원효사상의 부흥을 보는 듯하다.

제3권 '잡문편'은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안과 불교계 신문과 잡지, 대학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았다. '마음이 밝아야 세상도 밝아진다' '생사인 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싶다"면서 창립동기를 밝혔다. 원효사상등 불교사상 강좌와 세미나 개최, 논총발간, 유적조사 및 도서간행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게 될 원효연구원은 첫 사업으로 원효스님의 생애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담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불교통사〉의 번역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운제스님의 학문활동을 결산한 불교선집 〈기원의 꽃〉 제1권 고승편.

원효연구원 이사장을 맡게 되는 운제스님은 〈원효사상〉등의 저서와 '원효의 인물과 사상' '원효대사 著 〈判比量論〉에 대한 고찰' 등 5편의 원효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원효사상 선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교선집 출판기념 및 원효연구원 발족기념 법회는 11월9일 오후 3시 경복궁 옆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02)723-0425

김재경 기자

출판학제

맹란자씨 첫 수필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

지성·사유·헌신등 체험의 언어 49편

"배에는 달빛만이 가득하거니, 달빛만 가득하다면 그것으로 좋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혼자서 차오르는 달처럼 내 안에서 만월(滿月)을 이룩하고 싶었다. 저 무욕대비(無欲大悲)의 만월…."

수필가 맹란자씨(55세, 동양서숙 대표)의 불교와 동양학에 대한 탐구와 체험으로 가득찬 에세이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우리출판사 刊)이 나왔다.

저자는 '가을 풍경' '너무나도 짧은 우리들의 여름' '환지본처(還至本處)' '주역(周易) 산책' 등 총5장의 주제로 49편의 글을 통해 하심(下心)과 겸손으로 평생 중생제도에 힘쓰다 열반한 부처님과 소유(所有)가 범죄 같다는 간디의 무소유 정신에 고무되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방하착(放下着)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대 국문과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료하고 연극계에서 기획 연출을 담당하다가 국어교사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인생 여정을 통해 얻은 진솔한 체험을 회화적인 시어들로 섬세하고 감칠맛 나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1969년부터 〈신행불교〉 〈법시〉 〈금강〉 〈여성불교〉 〈불광〉 등에 기고한 글도 함께 담았다.

장지현정사 두번째 시집 '늙은 산' 나와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진각종 장지현 정사(美 LA 진각종포교원 주교)가 두번째 시집 〈늙은 산〉(실천문학사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승(僧)과 속(俗), 기억(고국과 고향에 대한)과 현재(미국 LA의)가 부딪히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표제작인 '늙은 산'은 늙을수록 깊어가는 아버지의 山을 통하여 인간이 귀착하게 될 삶의 마지막 정점을 묘사했다.

문학평론가 홍정선교수(인하대)는 이 시집에 대해 "그의 시를 읽으면 나와 너, 승과 속, 기쁨과 슬픔, 기억과 현재, 인간과 미물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부둥켜 앉는다"고 평했다.

화제의 책

밀교의 세계 정태혁 지음

부처님이 깨달은 비밀스런 진리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밀교. 동방불교대학 정태혁 학장(전 동국대 교수)이 쓴 〈밀교의 세계〉는 신비스런 밀교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소개한 개론서인 동시에 대승불교의 실천지침서이기도 하다.

밀교 알기쉽게 정리 '실천 지침서'

저자는 앞으로의 세계를 대승불교의 연화장 세계와 만다라의 세계로 보고 밀교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를 21세기를 떠받칠 새로운 사상으로 파악한다. 대승불교는 밀교에 이르러 시대와 장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 승화시켜 나갔기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지구촌 시대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밀교가 사회구제를 표방하며 이전의 불교가 용인하지 않았던 재래신앙적인 요소를 불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사상체계를 갖추고 탄생한 점도 이같은 전망을 갖게 한다.

〈고려원 8천원〉

새로나온 책...

▲걸림없는 길(한길로 저)=봉인사·한길정진원을 창건한 故 한길로법사(1919~1996)의 유고집.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 등 29편의 글을 통해 수행과정에서 느낀 감회를 정리했다. 〈봉인사 비매품〉

▲소설 육조대사(한정섭 저)=중국의 초기 선종사상을 반소설체로 알기 쉽게 풀이한 입문서. 눈 속에서 팔을 끊어가면서 道를 구한 2조 혜가대사, 문둥병으로 사해를 유랑하다가 혜가대사를 만나 해탈자재한 3조 승찬대사, 14세의 어린 나이로 인가를 받은 4조 도신스님, 중국 특유의 선불교를 형성한 5조 홍인대사, 일자무식으로 열반경을 해설한 6조대사의 구도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불교통신교육원 6천원〉

▲떠나는 자만이 인도를 꿈꿀 수 있다(임헌갑 저)=1993년 이후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 임헌갑의 인도 기행문. 인도의 아름다운 땅과 하늘, 욕심없이 삶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수행자들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그리고 있다. 〈엔터 1만원〉

▲동아시아의 양명학(최재목 저)=한·중·일 삼국 양명학의 발전과 변용을 분석한 연구서. 양명학은 명대 중기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교조화된 주자학적 학풍에 반기를 들고 '마음의 해방' 및 '마음의 실체론적 복권'을 역설하며 나온 새로운 사상이었다. 〈예문서원 6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7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터사
8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9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	우 학	좋은인연
10	위대한 자기의 발견	서 암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진흙소의 울음

〈진흙소의 울음〉(홍법원 刊)이란 책을 읽고 그 많은 법어들의 뜻이 깊고 깊어 다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그 중에서 참선곡(參禪曲)과 오도가(悟道歌)의 감동에 빠져 선사의 법어를 이해한대로 몇자 적어 볼까 한다.

경허 스님은 원래 속세의 성명은 송동욱(宋東旭)이요, 여산(礪山)사람으로 전주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성우(惺牛)요, 호는 경허(鏡虛)이다.

경허의 참선곡에 도시몽중(都市夢中)이란 말이 제일 먼저 제시되어 있고 천만 고에 있었던 영웅호걸이 있다 하여도 한줌의 흙으로 북망산 무덤뿐이라 하였으니, 인생 무상을 일찍이 깨닫고 꿈이 아니냐는 자문자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우주의 변화무쌍한 생멸(生滅)의 법칙을 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뜻을 순간의 꿈에 비유했던 것이다.

그렇다. 오늘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천하 모두를 소유하려 하니 그 얼마나 무모한 생(生)의 장난이란 말인가?

불법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생각하여 서로가 존중한다면 과욕에서 해탈되어 마음의 극락을 찾을 것이요,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이니 이것 모두가 현실의 극락이 아니겠는가?

오도가에서 경허 선사는 현실을 탄식하며 그 누구도 그가 전하는 법어의 참뜻을 이해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많은 사람중 아무도 그의 옆에 없다 하였으니, 이는 실체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사방을 돌아보아도 없다 하며 저 대자연의 위대한 변화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봄이 되어 만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 가을밤에 달은 밝고 바람만 맑기만 하다고 하며 생명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노래나 불렀다고 한다.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어두운 속세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탄식하였다.

경허 스님의 위대한 불법의 진리는 자연의 춘하추동이 변화무쌍함을 보면서도 중생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함과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경지를 이해 못하는 현실을 탄식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김 정 진
〈경북대 교수·윤리교육〉

"초목·기왓장 하나도 法華로다"

마음 닦는 공부 안내서 역할

천지 자연의 삼라만상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는 이렇게 보았다. "초목 하나, 길가에 뒹구는 기왓장 하나, 자갈 하나 모두가 화엄(華嚴)이요, 법화(法華)로다. 내가 항상 설하나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이 곧 마음속 스스로의 부처지 원래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이다. 모든 묘한 이치가 마치 꿈에 연꽃이 핀 것을 깨달음과 같다"고 하였다.

아! 이 얼마나 값진 인생의 삶에 주는 선물이란 말인가?

늦은 가을, 이 책 한 권을 통해 값있는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